한 보수파, 대북 기조 수정 '반발'

김용갑 의원 등 잇단 비판… 지도부 설득 나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그간 유지해 오던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진영 내부에서 내홍이 일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극우 인사들의 한나라당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당내 대표적 '보수논객'인 김용갑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일부에선 열린우리당보다 우리가 앞장서서 더 많이 퍼주고, 퍼주기라는 말도 하지 말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지지하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하루아침에 대북정책 노선이 확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국민에게 도리어 신망을 잃고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표적 극우 인사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 '불임정당으로 회귀하는 한나라당'을 통해 "한나라당이 친북좌파들의 선동 선전에 영합하는 기회주의 노선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할 수도 없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추파를 던지면서 대선음모용 정상회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그는 또 "이념 및 무장 대치상황의 한국에서 무(無)이념 기회주의 정당은 자동으로 정권 불임(不姙)정당, '내시 정당'이 된다"며 "한나라당의 대권후보군에서 그런 공약을 내거는 사람이 없다면 한국인은 선명 우파정당을 만들어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도 이날 '조갑제 닷컴'에 띄운 글을 통해 "세계의 대세가 그렇다 하여 한나라당이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삼키면 결국 한나라당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무너진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책을 바꿀 필요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원칙을 포기하면 민족은 망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도 한나라당의 변화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quenam77'의 네티즌은 "한나라당은 가벼운 종잇장 같은 행태를 보이지 말라"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서두른다고 한나라당도 똑같이 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kimhg50'라는 네티즌은 "한나라당이 또다시 대북문제에 있어 어중간한 태도로 변한다면 지난 대선에서처럼 친북좌익 정권에 대권을 주고 말 것"이라며 김형오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도부는 "정강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적극 해명하면서도 국제정세에 맞춘 적극적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해를 살 만한 발언에 대한 '입조심'도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당 '추가 탈당' 현실화될까

열린우리당 문학진, 정봉주, 강창일 의원 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발전적 해체를 포함해 조속하게 대통합 신당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 초선의원 6명 당 해체 요구

내달 민주 전대·재보선 고비 될듯

열린우리당이 추가 탈당설로 다시 뒤숭숭해지고 있다.

2·14 전당대회를 치른 지 한달이 지난 지금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는 회의론이 퍼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추가 탈당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정세균 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가 당을 추스리고는 있지만 한계가 극명하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물밑으로는 탈당을 예비하는 듯한 움직임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장 문학진, 정봉주 의원 등 초선의원 6명이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당내 다수의 의원들이 탈당 그룹과 교감을 나눈 상태여서 추가 탈당은 시기가 문제일 뿐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관측이다.

침묵하는 다수가 이미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40명 이상의 대규모 탈당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당내 주요 지분을 점하고 있는 정동영, 김근태 전의장의 거취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전 의장은 최근 "지난 한달의 경과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측근들을 통해 나타내고 있으며 김근태 전 의장측도 "신당추진 상황을 보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탈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3월말이나 4월 중순에는 되면 또다시 집단탈당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3·25 탈당설'이 나돌고 있다. 정대철 상임고문 등 일부 원외 인사들과 충청권 의원들이 우선 선봉에 서고 다음에 정동영 의장 계열 의원들이 뒤따라 나서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추가탈당이 조기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탈당의 명분과 현실적 여건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탈당 그룹이 처한 냉혹한 현실도 추가탈당 움직임을 더디게 하고 있다.

탈당 흐름을 주춤하게 만드는 보다 결정적인 변수는 민주당의 4·3 전당대회다. 범여권 정계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진용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 정계개편의 흐름이 가닥잡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 탈당 결행시기는 민주당의 4·3 전대 이후나 4·25 재보선이 끝난 직후라는 전망이 설득력있게 대두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반도 평화 정당연석회의 하자"

정세균 의장 제안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15일 "6자회담 전개, 북미관계의 변화상황을 지켜볼 때 남북정상회담은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는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절차·형식·장소에 구애됨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하루빨리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취임 1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당연석회의를 제안하며 이 회의체를 시민사회 영역까지 참여하는 확대연석회의 구성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냉전에서 평화로, 당의 근본 정책을 바꾼다고 하면 국민이 이해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여권 통합 3대 원칙으로 ▲어깨를 같이 걸고 서로 보폭을 맞춰 똑같이 한 발씩 내딛는 '어깨동무 통합' ▲몸집과 관계없이 모든 정파와 수평적 대화를 하는 '희생적 통합'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을 내세우고 범여권 제정파간에 상호비방을 자제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범여권의 4·25 재보선 연대 문제에 대해 "재보선 지역이 수도권과 충청, 호남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시기적으로도 통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우리당은 대통합의 관점에서 선거연합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 홍보특보 이백만씨

농업특보에 이봉수씨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이백만(51)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홍보특보에, 이봉수(51)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을 농업특보에 각각 내정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이 전 수석은 광주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언론계에 입문해 한국일보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한국경제TV 보도본부장을 거쳐 국정홍보처 차장,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이 전 부회장은 김해시 상동면 4H회장, 김해시 농업경영인회장을 거쳐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 농업정책 특보를 역임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김해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립 5·18민주묘지 찾은 주한 美 부대사

윌리엄 스탠턴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가 15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山寺 칩거'

"경선참여 여부 놓고 생각좀 정리하겠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중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5일 지방에 있는 한 산사(山寺)에서 칩거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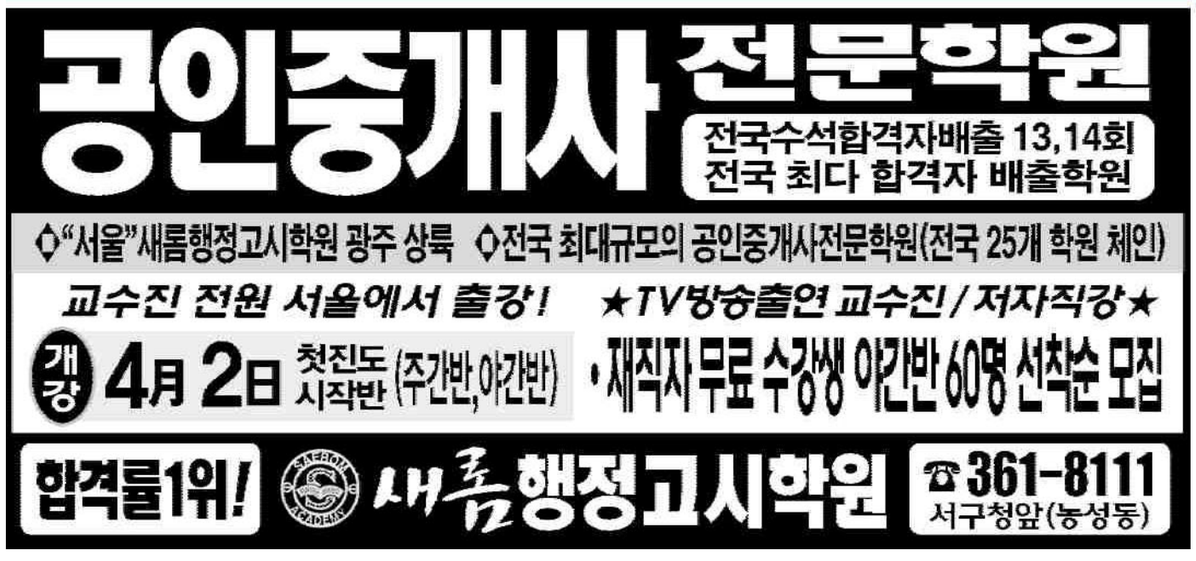
당 경선준비위가 대선후보 경선 룰을 확정짓기로 예정된 18일까지 나흘간 향후 행보와 거취를 고민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후 중도통합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전진코리아' 창립대회에 참석한 직후 캠프 관계자들에게 "생각 좀 정리하겠다. 일요일에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승용차 편으로 지방에 있는 한 산사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핵심 측근들에게도 사찰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수행비서만 데리고 홀연히 떠났다는 후문이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손 전 지사의 '시한부 칩거'을 놓고 여러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손 전 지사가 경선 불참과 탈당에 이어 중도 성향의 '제3세력'을 규합한 신당을 창당한 뒤 대선에 출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날 전진코리아 창립대회에서 행한 격려사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치질서의 출현을 당위성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한 대목에 유의하는 시각이다.

그러나 캠프에서는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한 측근은 "수많은 억측과 질문에 심신이 지쳐 쉬러 가신 것뿐"이라며 "지금 서울에 있으면 기자들에게 시달리기 밖에 더 하겠느냐"고 반문했고, 다른 측근은 "생각과 고민이 많으시니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재섭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경쟁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손 전 지사와의 접촉을 위해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